

멕시코의 사회구조변동과 도시비공식부문의 사회적 성격* — 신사회운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

이 남 섭

이 연구에서 우리의 주제는 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 조정이 멕시코의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사회의 반응으로서 신사회운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규명하려고 한 중심테제는 비공식부문의 증가현상과 신사회운동의 증가현상은 일시적인 위기적 요인에 의한 순간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장기적 경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점을 우리는 먼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동과(포스트포디즘)과 멕시코 국내의 신국가 헤게모니 형성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분석하였고 그다음 도시비공식부문의 성격을 고용구조적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사회운동의 성격과 구조를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주요한 가설은 신자유주의 구조변동은 축적과 지배의 새로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합의한 국가와 자본의 이니셔티브의 결과이며 신사회운동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도시대중의 생존과 저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주체형성의 과정의 일부이다. 이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틀로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한편으로 우리는 구조변동에 있어서 국가와 자본의 상대적 운동의 상호 영향을 강조하는 최근의 조절이론을 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문제와 사회운동을 관련시키면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형성과정으로 보는 신사회운동 이론을 사용하였다.

I.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주제

지난 80년대동안 멕시코는 지속적인 경제적 위기의 극복을 신자유주의 정책의 적용을 통하여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계층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이고 사회적 역학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지난 10년 간의 신자유주의 실험에 대해 국제여론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한다면 멕시코 국내에서는 “실패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있다(Castaneda, 1993 : 19).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경제지표와 정치지표의 차이에서도 표현된다. 저인플레, 외국인 투자의 증가, 수출의 증가등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공을 가져온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신뢰는 오히려 낮아지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이후 최악의 상태로 하락하였다.¹ 특히 “미래의 기업가”로 간주되는 도시 비공식부문의 “선거반란”과 저항적 도시사회운동의 증가현상은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최근의 신자유주의 구조변동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도시사회운동의 증가와 신자유주의 구조변동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멕시코 도시비공식부문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1980년이후 지배적 경향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가 멕시코의 고용구조와 사회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도시비공식부문의 사회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 하려 한다. 이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주요한 가설은 신자유주의 구조변동은 축적과 지배의 새로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합의한 국가와 자본의 이니셔티브의 결과이며 신도시사회운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도시대중의 생존과 저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과정의 일부이다라는 점이다.

우리의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80년대 신자유주의 구조변동의 이유와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는 도시비공식부문의 성격과 팽창의 의미는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신사회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

(1) 국가의 성격과 역할

우리의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이론적 문제의 하나는 구조변동에 있어서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다. 지난 80년대동안 멕시코의 구조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성격규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멕시코의 구조변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은 크게 두 경향으로 나누어진다.² 하나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동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새로운 분업의 결과라는 신맑스주의의 구조주의 이론의 입장에 선 해석(Cobos, 1987 ; Bravo, 1990 ; Aguilar, 1992)이고 다른 하나는 멕시코의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전략의 변화의 결과라는 신국가론의 입장이다 (Cordera y Tello, 1981 ; Basanez, 1991 ; Alonso y Azis, 1992). 신국가론은 도시비공식부문의 성격을 규명하는 논의로 인하여 더 가열되어졌다. 전자는 외부(자본)결정론의 경향을 떤다면, 후자는 내부적 요인(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입장을 견지한다. 우리는 이

¹ 1934년에서 1988년사이 집권당(PRI)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지지도의 변화

정당	1934	1940	1946	1952	1958	1964	1970	1976	1982	1988
PRI	98.19	93.89	77.90	74.31	90.43	88.82	86.02	100.00	70.99	50.35

자료 : *Uno mas uno*, p.8,14 de julio de 1988/ Manuel Alcantara y Antonio Martinez(Comps.), *Mexico frente al umbral del siglo XXI*, Madrid, Siglo XXI, 1992, p.283에서 재인용

² 60-70년대 멕시코 국가에 대한 분석으로는 폴란스의 구조주의 국가론에 근거한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구미의 조직이론에 입각한 국가분석이 중요한 학파를 이루고 있었다. 전자에 입각한 분석으로는 이성형의 학위논문(1990)을 참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이론에 입각한 멕시코 국가의 분석으로는 김병국의 학위논문(1994)을 참고 할 수 있다.

두 요소의 상호 영향을 강조하는 최근의 조절이론의 입장(Lipietz, 1987 ; McCaughan, 1993)을 주목하려 한다. 즉 국제자본의 영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조절이론의 해석은 멕시코의 구조변동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2) 도시비공식부문의 개념정의

우리의 연구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이론적 문제로는 비공식부문(Sector Informal Urbano:SIU)의 개념정의이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³ 이미 우리는 칠레의 경우를 연구하면서 비공식부문의 개념정의가 단순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었다(이남섭, 1994). 이점은 멕시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멕시코의 도시비공식부문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는 1975년에 멕시코시의 한 빈민지역에서 “비공식조합주의적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Larima Lomitz의 연구가 있으며 그후 1977년에 Lourdes Arizpe가 도시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제한된 기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내에서 할 수 있는 비공식적 노동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79년에는 Sonia Ruiz Perez가 멕시코의 남부지방의 오아하카(Oaxaca)주의 수도에서 구걸행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구걸행위의 성격과 그 행위의 형식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지적하였다. 1980년에는 Uzzel이 Oaxaca(오아하카)농촌지역에서의 고용전략의 하나로서 비공식부문으로의 흡수가능성이 있음을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고용전략의 하나로 비공식부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의 연구로는 Jorge Alonso가 1980년에 멕시코의 신흥도시빈민지역인 아후스코구(Ajusco) 주민의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의 흡수와 노동조건을 분석한 것이 있다. 그의 연구의 촛점을 비공식부문이 아니라 전통적 노동시장이 어떻게 종속적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요소인지를 규명하는데 있었다. 비공식부문의 노동시장은 생존의 수단으로서 분석되어졌다. 다시 말해 멕시코에서 도시비공식부문과 사회경제적 구조와의 관련을 다루는 체계적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Belisle, 1992). 멕시코의 Colegio de Mexico의 사회학과와 인구학과 그리고 FLASCO의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주도되었으며 이론적 입장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 경향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⁴

3 비공식부문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농촌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 문제를 제기하는 이로는 오스카 쿠에야(Cuellar, 199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차야노브(Chayonov, 1961)의 농촌 경제의 조직이론에 근거하여 도시비공식부문을 분석한다. 그는 농업의 대규모 상업화, 농지개혁의 폐지가 도시비공식부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또 최근에는 비공식부문을 “경제의 사회적 부문(sector social de la economia)”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치하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도시비공식부문으로 제한할 것이다.

4 도시비공식부문(SIU)에 대한 논의가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계에 주목을 받게 된데에는 폐루의 헤르난도 테 소토와 마토스 마르의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중요성은 논쟁적 성격에도 불

1) 첫째는 신맑스주의의 접근방식이다. 이들에 의하면 비공식노동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변부계층과 미성년자의 노동착취, 구걸, 저임금과 과잉수탈을 추구한다. 비공식부문이 착취와 축적의 수단이라는 지적이다(Padilla 1978). 다른 한편으로 비공식부문은 자본의 지배에 대한 저항의 형식이며, 포괄적 질서를 창출하는데 무능력한 국가기구에 대한 대중적 응답이며 새로운 시민사회의 씨앗이라고 규정한다(Friedmann y Salguero, 1987 ; Escobar, 1992). 다시 말해, 비공식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현되는 일상적 활동들은 민주적 사회주체의 건설을 돋는 데 기본적인‘ 요소들을 제공한다.

2) 둘째는 경제주체들이(자본) 지난 다음 두가지 관점이 있다 : 하나는 공식부문의 중소기업의 관점으로써 비공식부문을 소규모 영세기업에 의한 불성실한 경제의 화신이라고 규정한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가들의 입장으로써 비공식부문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법적 규제와 재정적 부담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전자는 기업의 성격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서 5명미만이 고용된 “불법적인” 소규모 기내 기업-영세산업을 의미한다. 후자는 국가의 조절기능에 중요성을 두는 관점으로서 사회보장, 고용조건, 건강과 보험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법의 보호가 전혀 없는 고용인으로 구성된 기업을 비공식부문이라 정의한다. 비록 기업의 규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나 국가의 조절기능을 보다 중요하게 취급한다. 법적 조건의 완화를 강조한다. 생산성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창조적 미래의 기업가로 규정한다.

3) 마지막으로 정치권(국가와 정당)에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비공식부문을 정치적 고객주의(Clientelismo)의 이용 대상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비공식부문은 정치적 고객으로 간주되며, 정당과 정치적 중개자들의 권력의 기반이 된다, 이들은 비공식부문의 원인을 제거하는 대신에 그들의 종속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비공식부문은 도시에서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하나의 축이 된다(Lamitz, 1984).

비공식부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한가지 공통된 (기술적인) 개념정의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려 한다. 현존하는 노동법의 주변에서 노동하는 이들 또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수 또는 보상을 받는 이들의 고용형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소규모 영세기업과 사회보장의 법적 보장과 노동쟁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하는 경제부문을 비공식부문과 정의한다(Escobar, 1992 : 255 ; Oliveira, 1993 : 34).

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성격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재개 하였다는 데 있다(Mar, 1984 ; de Soto, 1986). 마토스 마르가 프랑스학파의 구조주의 분석이론을 원용하고 있다면 헤르난데 데 소토는 미국 사회학의 경험주의적 분석을 적용한다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 두이론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으로는 화이트헤드의 연구를 참고 할 수 있다(Withehead, 1989)

(3) 신사회운동의 개념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세번째 중요한 개념은 신사회운동(*Nuevos movimientos sociales* : NMSs)이다. 신사회운동은 갈수록 사회과학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사회적 저항의 담지자로써 또는 때로는 대안적 대중적 프로젝트로서 연구되어 왔다. 멕시코내에서 도시사회운동에 대한 지배적 이론은 프랑스학파의 이론이며 특별히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과 호르디 보르하(Jordi Borja, 1984)의 이론이 주로 활용되었다. 멕시코 도시문제에 대한 프랑스학파의 영향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에서의 연구의 진행과 함께 더욱 현저하여졌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 도시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멕시코의 도시사회운동의 성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 이론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룹이 멕시코 시립대학의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한 Emilio Duhau(1991 ; 1992)와 Emilio Pradilla Cobos(1987), Rene Coulomb(1992) 그리고 Priscilla Connolly(1991)이다. 이외에도 과달라하라 CISMOS의 Juan Manuel Ramirez(1992)는 도시문제와 사회운동을 연결시키는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연구성과를 주목하며 이 연구에서 우리는 사회운동을 새로운 사회주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다(Touraine, 1987 ; Castells, 1981 ; Camacho, 1989 ; Calderon, 1986).

사회운동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특수한 이익을 의도적으로 방어할 목적으로 시민사회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이나믹스의 하나로 간주한다. 사회운동은 부분적 혹은 절대적으로 기존의 지구조를 문제삼으며, 그 합축적 의도는 사회적 발전의 조건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변혁시키는 데에 있다. 다른 이들은 사회운동을 단순히 정당에 종속된 실천으로서 규정한다. 다시말해 사회적 주체의 개념화는 잘 정의된 프로필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운동은 정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요구한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정치적 실천을 단순히 “권력의 장악”으로만 제한하려는 경향을 극복하려 한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전통적인 형식(국가와 정당)들이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그 본성상 정치의 전통적인 개념을 문제삼는다. 정치의 개념은 오랫동안 국가적인 것과 정치계급의 소유물로 의미되어 왔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정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지 않고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구성의 과정으로 보려고 한다(Martin del Campo(coord.), 1985 ; 1986 ; Gallardo, 1986 ; Nunez y Burbach, 1988 : Camacho, 1989). 다시말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변증법적 관계속에서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회운동을 정립된 하나의 범주로 이해하지 않고 사회-역사적 구성의 과정으로 이해하려 한다. 사회적 주체의 구성은 경제구조 속에서만 형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요소 속에서, 가령 사회적 역사와 기구의 역사, 다른 계급과의 관계와 정치권력과의 연결형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 이러한 결정요소들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으며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상황과의 내부적 연결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요약하면 개념정의의 문제는 아직도 막연하며 지나치게 폭이 넓다. 사실상 이 영역에

있어서 이론화는 아직 초보적이며 이 운동의 본성과 함축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 개념정의를 하려 한다. “신(도시)사회운동(MSU)”이란 개념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도시의 다양한 계층에 의하여 구성되며 그리고 국가와 부르조아에 대하여 자율성을 지니며 자본주의 도시의 발전을 이끄는 대안적 도시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그룹을 가리킨다.⁵

우리는 이 연구에서 이 세가지 이론적 방법론적 개념을 상호연관속에서 이해하려 한다. 새로운 국가의 형성과 구조의 변동이라는 긴장관계속에서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이미 프로젝트 제출시 설정한데로 우리는 현지방문을 통한 1차조사와 1차문헌의 분석을 병행하는 연구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취하였다. 그러나 예정했던 체계적인 인터뷰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멕시코내에서 행해진 기존의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⁶ 이글에서 우리의 연구시기는 1982-1992년로 제한한다.

II. 80년대 멕시코 사회구조변동과 도시비공식부문의 성격

1. 구조변동의 원인

최근의 멕시코자본주의의 구조변동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많은 멕시코 연구자(mexicanista)들은 이전의 수입대체산업을 축으로 한 발전전략이 실패한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음을 강조한다. 즉 내재적 요인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 특히 이들은 지배층 내부의 대립과 갈등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가령 1940년 이후 멕시코의 자본주의 발전은 지배계급내의 두 대립적 세력의 대립으로 성격 지워진다. 카르데나스(Lazaro Cardenas)의 민족주의 세력과 알레만(Miguel Aleman)의 외국자본 지향적 세력의 대립이 그것이다(Basanez, 1991). 전자는 수입대체산업을 통한 민족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면 후자는 은행가와의 보수적 동맹을 통한 다국적 발전모델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였다(Cordera y Tello, 1981 ; Basanez, 1991 ; Cypher, 1992).

이러한 해석은 발전전략의 변경원인에 대한 설명이 너무 단순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입장은 60년대말과 70년대를 지배하였던 종속이론의 외부결정론이 지녔던 동일한 오류

5 사무엘 레온 이그나시오 마르반은 사회운동의 범주안에 농민운동, 인디오 원주민 운동, 지방자치단체 운동, 도시민중운동, 중간계층운동, 노동운동을 다 포함시킨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신사회운동은 도시민중운동과 동일한 범주로 사용할 것이다(Leon e Marvan, 1989:34-53).

6 기본적으로 PREALC과 CEPAL 그리고 멕시코정부기구의 공식 통계를 사용하였다.

를 범한다. 이 당시 종속이론은 국가의 자율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국적 기업의 절대적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이와 달리 80년대의 연구는 국가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본의 독자적 운동논리를 과소평가한다. 동일한 집권층내부의 혜개모니투쟁의 결과에서 기인한 경제정책의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여기서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이 지배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외부(다국적 자본)의 압력인가 아니면 집권층의 지배와 축적의 새로운 체제의 하나인가? 우리는 수입대체산업의 실패에서 초래한 경제위기라는 진단과 신자유주의 처방은 지나치게 단순한 분석이라고 본다. 이점은 지난 12년의 신자유주의 처방의 결과와 지난 40년간의 수입대체 산업의 경제발전모델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바로 입증이 가능하다. 경제성장률, 소득수준, 외채, 고용의 안전도, 사회보장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이전의 경제적 위기가 신자유주의 시기의 위기보다 심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점은 정치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회와 대중의 반응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선거결과의 변화가 결정적인 지표는 아니라 중요한 평가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집권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시기가 경제적으로 “성공적”이라는 찬사를 받은 신자유주의 시기라는 사실은 이 성공이 누구를 위한 성공이었으며 구조변경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한다. 우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동에서 오랫동안 상대적 자율성을 지녀왔던 멕시코의 국가가 이제 서서히 외국자본의 영향권(특히 FMI와 BM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안에서 그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배혜개모니의 재조정과정에서 나타난다(Casanova, 1990; McCaughan, 1993). 멕시코 지배계급의 혜개모니전략은 국가와 노동파의 동맹보다 국가와 자본파의 동맹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다(Basanez, 1991 ; Cypher, 1992). 이것은 새기술관료(Nuevos científicos)에 의해 주도되고 신자유주의 국가건설과 신조합주의의 형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Centeno, 1990). 요약하면, 구조변동의 진정한 배경은 단순한 지배 혜개모니내부의 노선변경의 결과라기보다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동에 따른 노동의 새로운 국제분업(포스트포디즘)과 자본에 대한 멕시코국가의 협약성이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이점을 고용구조의 변화와 비공식부문의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 고용구조 변화의 특징 : 소규모산업의 고용증가

카를로스 태요가 적절히 표현하였듯이, 1980년대 멕시코 자본주의는 멕시코 발전의 모델선택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에 의해 혜개모니가 장악되었다(Cordera y Tello, 1993). 이것은 포디즘적 생산양식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멕시코에서는 “종속적 자유주의” 또는 “종속적 포스트포디즘” 또는 “주변부 포스트포디즘”的 형식을 지닌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주변부 포스트포디즘”으로 규정되는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이 고용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의 일차적인 특징은 내수시장의 포기와 수출지향산업으로의 전환이다. 이것은 생산적 재구조화가 아닌 산업구조의 양극화를 지향하며 탈산업화, 비석유 수출부문의 성장(<표 1>), 대규모 공기업의 민간화와 축소 그리고 소규모산업의 성

장을 추진한다(이성형, 1993). 이것은 수출경쟁력을 위해 낮은 임금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막대한 쌈임금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구조가 요구되어진다. 80년대 고용구조의 성격변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표 1〉 석유부문과 비석유부문의 지수, 1982-199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석 유 부 문	75.4	70.2	67.7	68.2	39.3	41.8	32.4	-	31.0	30.0
비석유부분	24.6	29.8	32.3	31.8	60.6	58.2	67.5	-	69.0	70.0

자료 : De 1982 a 1987: la economia mexicana en cifras, Nafinsa, 1988, Cuadros 15.10 y 15.11. Hector Guillen Romo 1990, p.122 와 Tom Barry 1993,p.124 에서 재인용

80년대 멕시코고용구조의 변화는 다음의 3가지 과정에 의해 특징지어졌다. 첫째, 제조업부문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표 1〉) 제조업의 공식부문에서 노동력의 감소현상이 일어 났다. 둘째는 임금노동화 과정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졌다(〈표 2〉). 마지막으로 상업과 서비스부문의 고용의 중요성이 증가되어 졌으며(〈표 3〉), 이것은 소규모경제활동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졌다. 이 소규모 경제활동은 주로 거리의 매점상인의 형태로 나타난다(Salas, 1993). 우리가 주목하려 하는 고용구조도 바로 이 소규모 산업의 고용구조이다.

1983년이후 멕시코 정부의 공식담론은 소규모산업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표명한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비공식 소규모기업도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규모기업의 양적규모에 대한 한 연구는 이러한 기업이 지난 준대표성(subrepresentacion)의 문제를 제기한다. 준대표성의 최대의 문제는 불법성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주의 네사우아코요틀(Netzahualcoyotl)시에만 소규모기업의 약 80%가 불법기업이다. 네사우아코요틀시는 가내하청과 비공식고용이 집중된 전형적인 위성도시이다(70년대 한국의 광주단지 또는 시흥의 칠산리 또는 사당동 달동네와 같은 지역이 밀집된 도시이다). 이 현상은 트락스칼라, 유카탄, 구아나후아토, 할리스코와 같은 전 멕시코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된다. 1980년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660,000명에서 2,250,000명의 노동자가 이 제조업부문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제조업 부문의 전체고용의 25%를 소규모기업이 감당하고 있음을 가리키며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Alonso, 1991:137).

1987년의 도시센서스에 의하면, 등록되지 않은 부문은 전체 고용부문의 64.7%를 차지하고 가내노동 또는 가내 마킬라는 이 부문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였다. 멕시코에서 증가하는 소규모기업은 두 가지 역동적이고 그러나 보충적인 두 조건의 결과이다. 한편으로는 유입된 외국자본의 근대기업과 고도의 기술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노동자는 비록 필연적으로 실업자가 되지는 않지만 심각한 임금압박을 받게된다.

자본가 기업에 있어서, 하청과 마킬라의 소규모기업이 이윤의 증가를 위한 확실한 것이라면, 멕시코의 노동자에게 있어서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소규모기업은(무엇보다 가내기업) 축적과 생존의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어 졌다(이성형, 1993). 멕시코 국가의 이러한 산업변혁 과정은 멕시코의 주변부 포스트포디즘으로의 이행에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982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이 수립된다: 하나는 하청화(subcontra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탈중앙화(descentralizacion)이다. 탈중앙화는 중장기 전략으로서 자본주의 축적의 새로운 모델이다. 탈중앙화는 엄청난 기술변혁과 절대적 잉여의 착취에 근거한다. 소규모기업은 바로 이 탈중앙화의 파라다임을 이룬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어린이, 여성, 노인의 노동과 같은 저임금과 유연한 노동이 충분한 곳이기 때문이다(Beneria, 1992). 이러한 이유로 외양으로 보기엔 다양한 산업화의 과정, 초현대적 산업화 그리고 가내공업이 사실상은 산업의 탈중앙화의 동일한 정치의 보충적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해, 멕시코의 소규모산업은 근대성의 징표도, 프로레타리아 대중의 기업가적 능력의 효과적 표시도 아니다. 또한 그들은 실업과 준실업의 숨은 구제책도 아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포드주의 시대 전통적인 공장의 전략적 역할을 상실하게 하려는 국가와 기업의 정책의 논리적 귀결이다. 칼레론에 따르면, 이 공장은 경제적, 정치적 주변화의 끊임없는 과정을 겪으면서 위기에 직면하였다. 현재의 포스트포드주의 자본주의에서 공장은 체제의 생산적 다이나믹스의 핵심적 수단이 되지 않는다. 포드주의적 생산양식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Calderon, 1993).

그러나 이 사회적 과정은 단선적이 아니다. 주변부 자본주의는 중심부에서 실험한 과정을 뒤늦게 반복하지 않는다. 주변부안에서도 과정은 동일하지 않다. 멕시코에서 소규모기업은 홍콩의 그것과는 다른 역할을 지닌다. 중심부에서 소규모기업은 기술혁명을 종종 포함하나 주변부에서는 이 가능성이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멕시코에서 소규모기업은 지배엘리트의 전략적 무기이며 그것은 노동계급의 전통적인 방어 전략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한다. 소규모기업앞에, 노동조합(운동)은 무장해제되어 있다.

3.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에서 도시비공식부문의 비중

지난 30년대이후 60년대까지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은 근본적으로 농촌과 농업구조가 지배적인 멕시코를 도시와 산업이 지배적인 멕시코로 전환시켰다. 1900년에 전체인구의 10%만이 도시인구였다면, 1940년에는 20%로 증가하였으며 1970년에는 44.7%로 1980년에는 54.1%로 전체 인구의 반이상을 상회하였다. 1990년에는 72%로 증가하여 멕시코는 완전히 도시사회로 전환하였다. 2000년에는 도시인구가 8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astell, 1973:8 ; 1988:63 ; Roberts, 1980:145).⁷

17 멕시코의 도시화의 통계는 동일하지 않다. 마누엘 까스텔이 그의 1973년과 1988년 연구서적에서 1960년에는 53.9%, 1970년에는 62.2% 그리고 1980년에는 69.0%로 증가하였다고 인용하고 있다면, 로버트 브라이언은 1960년에 34.9%, 1970년에 48.4% 그리고 1980년에 68.1%라는 다른 지표를 사용

산업화와 함께 임금노동자의 고용증가현상도 진행되어 졌다. 포드주의식 고용구조의 발전이 거의 30년간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2년 마드리드 정부는 산업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이전의 포드주의식 고용정책을 완전히 재조정하였다. 톰 베리에 의하면, 비공식부문은 국민총생산의 25-40%까지 차지 하며 1982과 1990년사이에 80%까지 증가하였다고 지적한다. 또 1989년에 비공식부문에 참여하는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며, 거의 통제밖에 있다고까지 추정된다(Barry, 1993). 비공식부문은 1982년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단지 주목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졌다. 즉 1982년에 멕시코에서 비공식부문에 고용된 주민은 PEA의 24.2%였다면 1987년에는 PEA의 33%로 증가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이후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1973-1987사이에서 보여주는 공식부문에서의 실직률 하락이 비공식부문의 팽창에 기인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다시말해, 포스트포디즘의 산업재조정모델(modelo de reconversion industrial)에 해당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Cortes, 1990:175). 앞의 이 진술을 입증하는 것을 브리가드 그라시아가 제공하는데 그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멕시코경제가 실험한 “봉급화(셀러리화)의 과정은 1980년대쯤에 와서 정체상태에 직면한다(Gracia, 1988). 와라톤에 따르면 비공식부문의 비율은 1976년과 1982년 사이에 고용인구 전체의 8.5%에 해당하였다면 1983년에는 11.2%로 1985년에는 13.2로 증가하였다.(Wharton, 1985)⁸ 1982년의 위기가 시작할 때 재조업 산업부문에서 비효율적인 과정의 부문을 비공식부문으로 이전하는 자본과 노동의 재조정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이 현상은 전 라틴아메리카에 공통적인 경향이다.

〈표 2〉 라틴아메리카 도시고용구조의 변화 : 1950-1989

성 격	1950	1980	1989	연 증 가 율	
				1950-1980	1980-1989
공식부문	76	75	69	3.9	3.0
공부문	14			4.5	-
사부문	62			3.7	-
비공식부문	24	25	31	3.9	6.7
총계	100	100	100	3.9	3.9

자료 : PREALC,Cuadro 2 y 3, 1990a/Perez Sainz, J. J., 1991, 62쪽에서 재인용

1982년에 조사된 연구에 의하면, 중소대기업의 산업노동자의 36%가 다음과 같은 혜택중의 하나를 결여하고 있었다 : 단체협약의 기간, 노동조합에의 등록 또는 의료보장체

하고 있다. 이 양자의 공통점은 1980년대에 도시인구가 65%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8 알랜 투랜에 따르면, 멕시코의 도시비공식부문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공식부문이 1950년에 21.6%라면 1980년에는 39.5%로 증가하였고 비공식부문은 1950년에 12.9%라면 1980년에는 22.0로 증가하였다.

제의 수혜(Mesa Lago, 1990). 다른 말로 하면, 비공식성은 미등록된 소규모 영세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독기관에 의해 아주 폭넓게 묵인되는 기업적 행위 중의 하나이다. 비록 이러한 혜택의 결여가 소규모 제조업기업에 보다 광범위한 것이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Escobar, 1992:256).

지난 몇 년 사이에 비공식부문으로 간주되는 인구는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실업의 팽창과 “주변적”고용(노점상, 거지, 포장마차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표 3>과 <그림 1> 참조). 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근대적인 공식부문의 기업

<표 3> 멕시코 고용구조의 변화, 1980-1987

(단위 : 천명)

년도	PEA	고용인구	실업인구	완전실업율%
1980	22066	20280	1786	8.1
1981	22826	21548	1318	5.8
1982	23666	21482	2184	9.0
1983	24466	20995	3471	14.2
1984	25266	21482	3784	15.0
1985	26266	21967	4299	16.4
1986	27266	21590	5676	20.1
1987	28266	21698	6568	23.2

자료 : Esthela Gustierrez Garza, *Testimonios de la crisis 4.los saldos del sexenio*, Mexico, Siglo XXI, 1990, 209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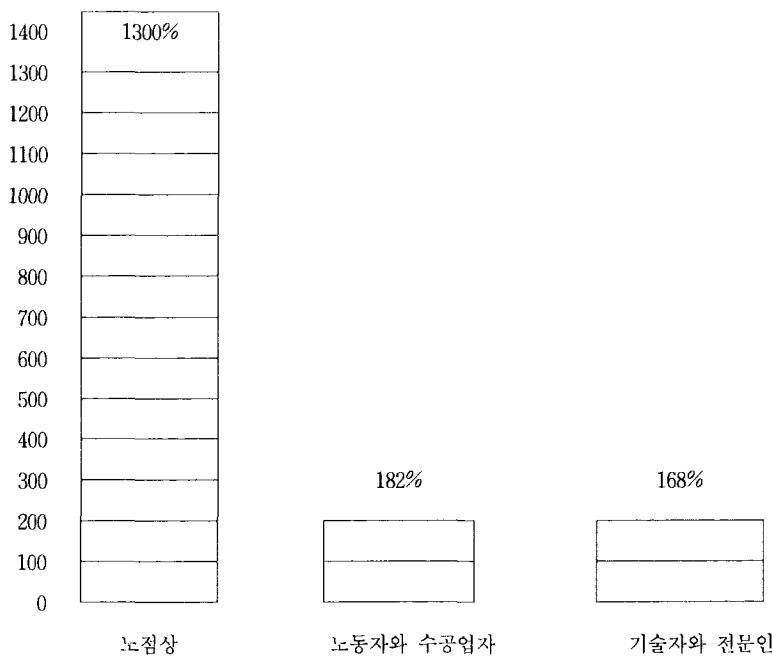
의 고용도 그 성격에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다. 대기업에 있어서 노동관계의 “유연성”, 국영기업의 사유화(또는 민영화)는 단지 후진부문과 주변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서의 비공식부문의 증가를 가져왔다(Escobar, 1990). 이러한 증가는 국영산업보다는 민간산업부문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비록 방법론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세팔(CEPAL)의 방법론에 따르면, 1980에서 1987년사이 라틴아메리카의 주요나라들에 있어서 비공식부문의 인구는 56.1%이며, 이 가운데 멕시코는 이들 나라 가운데서 가장 높은 82%이다. 멕시코에서 비공식부문의 급성장은 1982년 이후이다. 이것은 경제적 침체와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가 결합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부문이 저소득 계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전의자” 또는 위기의 “조정자”인지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Escobar, 1990:257-258).

비공식고용과 노동의 비율은 도시 사이에서도 커다란 격차가 있다. 멕시코의 3개의 대도시 가운데, 과달라하라시가 비공식부문의 비율이 가장 높다. 1975년의 도시지역에서 비공식고용에 대한 인구통계에 의하면, 과달라하라는 41.5%, 몬테레이는 27.6% 그리고 멕시코시는 35.3%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도시의 비공식부문 비율은 46.8%이다.⁹

9 Agusto Escobar Latapi, “El nuevo estado mexicano y el trabajo informal”, Jorge Alonso y Alberto Azis

〈그림 1〉 노동형태별 성장율, 1980-1987



자료 : Esthela Gutierrez Garza, 앞의 책 20에서 재인용

중소도시일수록 비공식부문에 대한 고용이 높은 현상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비공식고용은 지난 50년사이에 멕시코 고용에 기본적인 요소중의 하나였다 (〈표 4〉 참고). 그러나, 1980년 이후 그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1) 일반적으로 공식부문의 고용이 정체되는 것과 사기업의 공식부문의 노동관계의 재조정 2) 고

〈표 4〉 라틴아메리카 도시비공식부문의 증가율 : 1950-1980

나라	1950	1970	1980
멕시코*	37.4	34.9	35.8
브라질	27.3	27.9	27.2
아르헨티나	21.1	19.1	23.0
칠레	35.1	23.9	27.1
베네수엘라	32.3	31.4	20.8
라틴아메리카	30.8	29.6	30.2

자료 : Garcia y Tokman, Cuadro I, 1981 Juan Pablo Perez Sainz, 1991

(coords.), El Nuevo Estado Mexicano I, Estado y economia, Mexico, Nueva Imagen, 1992, 258-259쪽.

용에 대한 주민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여성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참여가 높으며 가공산업부문에 대한 여성노동력의 증가가 높다(Escobar, 1992:261).

4. 도시공간과 비공식부문의 양상: 생산과 서비스 그리고 상업

멕시코에서 비공식부문의 노동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다음 4개의 고용부문이다: 상업; 건축; 제조업; 서비스업종(Salas, 1992).

(1) 상업부문

이 부문이 비공식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상업화의 체계는 지난 수년동안 가장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여졌다. 지배적인 경향은 거리에서 구멍가게를 내거나 또는 노점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노점상인들은 얼마의 커미션을 지불함으로써 지역 판할 당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인정 또는 “관용”을 획득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멕시코 수도의 거리에서의 “노상 대중 간이식당”이다(Belisle, 1992). 또 다른 양상으로는 가두 책판매, 복권 판매, 특정기업의 상품권 판매등이 있다(Cortes y Cuellar, 1990).

(2) 건설부문

대규모 건설회사들이 그들 직원들(간부, 전문기사, 기술자 등)의 일부와만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노동자의 대부분을 모집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인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그리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교육수준이 낮으며 낮은 수준의 기술과 짧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공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지 못하며 사회보장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어떤 공사에서는 인부를 모집할 책임을 지는 감독 또는 십장에 의존하는 일련의 인부들을 구성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들 인부들은 사실상 하청업자로서 행사하는 사람을 위한 청부일을 하는 감추어진 임금업자들이지만 자발적 고용인으로 나타난다(Lubell, 1991).

(3) 제조업부문

이 생산업종의 기업들은 정규고용 인원을 최대한으로 감소하고 일시적 노동자들의 고용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비공식 부문을 이용한다. 이러한 조건아래 통합된 개인들은 공장의 노동자들만큼의 이익을 받지 못한다. 안정성이 없으며 질병 또는 사고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Mesa Lago, 1990). 특히 섬유업과 제화산업에 비공식 고용이 많다. 1940년 경에는 이 산업은 주로 소비도 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탈중앙화되거나 농촌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종종 사용되는 또 다른 정책은 소규모기업의 하청경향이다. 대기업들은 유지, 청소, 기계수리, 일정 부품의 생산과 같은 노동과정의 일부분을 때때로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존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상업화의 단계와 생산의 분배의 단계를 유보 또는 이전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업들은 일정한 위험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 갈등을 가지 않으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de los Rios, 1991:59-77).

(4) 서비스업종

이 업종은 주로 금융, 교통, 보건, 교육등 다양하며 업종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고용의 분류는 사실상 어렵다. 그 가운데서 가내 서비스업은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가장 혼란 일이다.

살리나스정부는 국가와 경제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생산과 상업 그리고 서비스업종에 있어서 활동의 자유화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5. 멕시코 도시비공식부문의 사회적 성격

지금까지 살펴본 멕시코 노동시장의 최근의 변화에 나타나는 경험적 경향은 무엇인가? 멕시코 도시비공식부문의 사회적 성격은 무엇인가? 제조업부문의 고용에서 “프로레타리화(proletarizacion)”의 정체형상과 “봉급화(salarizacion)”의 정체현상 경향이 나타나고 서비스부문 고용의 상대적 증가는 무엇보다 비임금노동의 증가(자영업)에 기인한다. 노동력에 있어서 “여성화”현상은 노동의 세계에서 여성의 진정한 해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매력의 상당한 상실에 따른 부수적 수입의 필요성에 기인한다(Rendon y Salas, 1992).

PREAL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1984), 수도권지역의 도시비공식부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76년에 비공식부문의 고용인구는 3,125,727명 이었으며 이중 45%인 1,400,908명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준설업과 주변적 주민의 이러한 집중은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일반적 경향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멕시코시의 상황은 인디오 원주민과 혼혈인의 존재로 인하여 특별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나 그들의 일자리, 재산 그리고 서비스는 이 수도권지역에서 공급받는다. 이것은 멕시코발전의 지역적 불균형한 시장의 산물이며 수도권지역으로의 이러한 이동은 중단되기보다는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여기

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 이주민은 기존의 가치관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달하는 도시세계에 통합되는 것을 저항하는 그러한 습관, 가치, 관습등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Montano, 1985 : 8).

1985년의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 전체인구의 21%(대충 1500만)가 거주하며 1982년에 년 5.6%의 성장율을 보여주었다. 이 증가의 대부분은 자연증가의 결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주에 기인하였다. 다른 한편, 수도권지역의 증가의 50%는 불법적 정착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고용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도권지역에서 비공식부문의 고용에 약 4백만명(35%)이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비공식주민은 거의 대부분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에 대한 집중(35.7%)과 상업에 대한 높은 집중율(25.6%)을 보여준다(<표 5>를 참고). 고용의 위치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비공식부문의 65%가 임금노동자이며

<표 5> 멕시코 수도권 지역의 공식,비공식 부문의 업종별 고용상황

업 종 별	고 용 인 구		
	전 체	비 공 식	공 식
전 체	4083945 (100.0)	1400908 (100.0)	2683037 (100.0)
농업과 축 산 업	45614 (*)	27043 (1.9)	18571 (*)
석 유 산 업	16793 (*)	466 (*)	16327 (*)
광 산 업	5598 (0.1)	466 (*)	15132 (*)
가 공 산 업	1182542 (29.0)	325006 (23.2)	857536 (32.0)
건 설 업	220085 (5.4)	122408 (8.8)	97677 (3.6)
에 너 지 와 전 기	40644 (1.0)	-	40644 (1.5)
상 업	709308 (17.4)	357960 (25.6)	351348 (13.1)
서 비 스 업	1341018 (32.8)	499692 (35.7)	841326 (31.4)
운 송 업	191636 (4.7)	50162 (3.6)	141474 (5.3)
정 부	328375 (8.0)	17239 (1.2)	311136 (11.6)
기 타	2332 (*)	466 (*)	1866 (*)

자료 : Direccion del Empleo-UCECA : Caracteristicas de la ... op. c t./ Jorge Montano, 앞의 책, p.35에서
재인용

(노동자와 고용인) 35%가 자영업에 해당한다. 임금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약 40%가 최저 임금의 반이상을 못받으며 거의 65%가 최저임금의 4분의 3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다. 비공식부문의 고용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짧다. 약 40%가 1년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며 23%가 지난 6개월동안 실업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비공식부문의 고용의 성별 특징을 보면, 남자고용의 중요한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56.9%).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여성인구는 남자보다 빠르게 비공식노동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을 입증하는 지표로 수도권지역에 고용된 남자의 29.5%

〈표 6〉 멕시코 수도권 지역의 공식·비공식 고용의 성별 상황

성	고 용 인 구		
	전 체	비 공 식	공 식
전 체	4083945 (100)	1400908 (34.3)	2683037 (65.7)
남 자	2700374 (100)	797850 (29.5)	1902524 (70.5)
여 자	1385571 (100)	603058 (43.6)	780513 (56.4)

자료 : Direccion del Empleo - UCECA : Caracteristicas de la ... op.cit/ Jorge Montano, Barreras institucional de entrada al sector informal en la ciudad de Mexico, 1985, marzo, p.34에서 재인용

〈표 7〉 자본주의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선정된 고용과 수입의 상황

나	라	비공식부문의 노동자 (국민총생산의 비율)	임금고용자 (봉급생활자)	국가별년国民소득
비	국	8.1	90.6	15,357
카	나	8.8	89.4	13,400
일	본	15.4	72.3	10,263
프	랑	14.3	75.9	8,907
영	국	7.6	82.5	7,533
싱	가	포	르	7,232
베	네	수	엘	2,974
메	시	코		2,284
파	라	파	이	1,774
도	미	나	카	1,754
에	쿠	아	도	1,378
파	태	말	라	1,170
나	이	지	리	771
아	이		티	352
네		팔		144

자료 : 고용상황에 대해서는:OIT, Anuario de estadísticas del trabajo. Ginebra,Suiza,1986. 국민일인당 소득
에 대해서는 UN,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of main aggregates, 1983/1984,New York,1987. Agustin
Cueva, Las democracias restringidas de America Latina, Ecuador, Planeta,1988, p.145에서 재인용.

만이 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다면 여성부문은 43.6%에 육박한다(〈표 6〉을 참고). 이 이유는 생산활동의 탈중앙화 결과 가내노동을 통한 생산활동에 여성의 참여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Fernandez, 1993).

가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공식부문은 제3세계만의 현상은 아니다. 제1세계에도 가난한자가 있듯이 제 1세계에도 비공식부문의 노동이 존재한다. 특히 비공식부문에 여성 노동력의 증가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Fernandez, 1993). 문제는 정도

〈표 8〉 멕시코 3대 도시에서의 봉급고용자와 비봉급고용자의 성별 비율

	전 체	남 자	여 자
멕 시 코 시			
전 체	100.0%	100.0%	100.0%
봉 급 고 용 자	62.6%	65.0%	59.4%
비 봉 급 고 용 자	37.4%	35.0%	40.6%
과 달 라 하 라			
전 체	100.0%	100.0%	100.0%
봉 급 고 용 자	52.5%	66.9%	37.8%
비 봉 급 고 용 자	47.5%	33.1%	62.2%
몬 테 레 이			
전 체	100.0%	100.0%	100.0%
봉 급 고 용 자	77.7%	76.9%	79.0%
비 봉 급 고 용 자	22.3%	23.1%	21.0%

자료 : *Calculos propios a partir de INEGI, Encuesta Nacional de Empleo Urbano. Indicadores trimestrales de Empleo, Ciudades de Mexico, Guadalajara y Monterrey. Abril-junio de 1987 y abril-junio de 1989: Carlos Salas Paez, 1992, p.30*에서 재인용

의 차이에 있다. 제1세계에서 가난한 자와 비공식부문의 고용이 소수임에 반하여 제3세계에서는 다수이며 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에 있다. Cueva(1988)는 이를 입증하는 아주 흥미있는 자료를 제시한다(〈표 7〉을 참고). 그에 의하면 제1세계에서는 봉급생활자가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비율이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사실은 멕시코내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멕시코 3대 도시의 예(〈표 8〉)를 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과달라하라에 비공식부문의 고용인 비율이 가장 높다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몬테레이는 비공식부문의 고용인 비율이 가장 낮다. 브리가다 가르시아의 연구결과에서 지적되듯이 제3세계 노동력의 임금화의 속도는 제1세계의 속도보다 느리거나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Garcia, 1988:9-10).

요약하면, 지난 80년대동안 변화된 멕시코의 경제상황에서 비공식부문의 증가현상은 경제 위기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자체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비공식부문의 고용은 사회보장국가 체제의 해체의 결과이며 그의 증가는 도시 빈곤의 압력의 결과였다. 이러한 압력은 국가와 시장이 안정적인 고용과 충분한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가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멕시코의 도시비공식부문은 “축적의 성격”과 “생존의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대중의 사회적 저항은 증가되어졌다. 이점을 다음 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80년대 도시 대중운동과 사회적 저항의 증가는 바로 이러한 조건의 반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III. 80년대 멕시코 도시 사회운동의 성격과 구조

1. 멕시코 도시 사회운동의 연속성과 새로움

멕시코에서의 도시 사회운동은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여러 연구들은 20년대에 세입자들의 운동이 주요한 도시에서 존재하였음을 밝혀내고 있다(Ramirez, 1986). 이외에도 대중그룹들은 카르데나스정부 기간동안에 특히 멕시코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 문제를 제기하였다. 세입자들의 중요한 파업이 1915년과 1930년사이에 일어났으며 보다 중요한 운동이 베라크루즈, 하라파, 오리즈바, 과달라하라, 멕시코시, 메리다, 푸에블라 시에서 일어났다. 베라크루즈와 멕시코시에서는 무정부주의자와 공산당이 도시사회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영향을 주었다(Adller, 1990 ; Hellman, 1988). 이 당시 전체인구 분포가 기본적으로 농업에 치우쳐 있었지만, 도시의 대중적 부문은 주택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Cobos, 1987 ; Gilbert, 1989).

일반적으로 1940년을 산업화와 도시발전의 시점으로 설정된다. 특별히 이시기에 멕시코시의 경제활동과 인구의 집중이 시작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이 증가하여 졌으며 도시의 변두리지역에 무허가 정착민이 팽창하는 것도 이 당시였다. 이 당시 이들 도시빈민들의 상황은 오스카 루이스(Oscar Luis)의 “산체스의 아이들(Los hijos de Sanchez)”과 루이스 뷔누엘(Luis Bunuel)의 “망각된자 들(Los olvidados)”에 의해 고발되어 졌다. 이시기 도시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대부분 일시적이고 비조직적인 성격의 저항이었다. 멕시코 국가도 이미 도시부문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1946년에 PRI는 CNOP를 조직하여 대중부문을 통제, 흡수하고 있었다. 조직화되고 독립적인 도시민중운동은 1968년 이후 전개되며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그 역사는 다음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 1) 운동의 준비기(1968-71) ; 2) 운동의 성장기(1972-1976) ; 3) 정치개혁과 운동의 팽창기(1977-1979) ; 4) 경제위기와 운동(1981-1983) ; 5) 신자유주의 개혁과 운동의 질적 변화(1983-1985) ; 6) 지진의 충격과 운동의 재건(1985-1988) ; 7) 운동의 정치적 도전과 위기(1988-1992)(Ramirez, 1986 ; Leon e Marvan, 1989 ; Vega, 1989 ; Moctezuma, 1993).

1968년을 전후로 하여 도시사회운동은 급속히 증가함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변화는 1983년을 기점으로 전개된다. 1983년 이전의 운동이 도시권리회복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면 1983년 이후의 운동에서는 단순한 권리회복의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대안과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가 표면화 된다. 이전의 단순한 선거 고객주의의 대상에서 민주화 요구의 주체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Foweraker and Craig, 1990 ; Hellman, 1994). 멕시코 시민사회의 출현은 바로 이시기의 도시사회운동을 통해 강화된다. 이제 이 운동의 성격과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도록 하자.

2. 도시사회운동의 성격과 구조

도시운동은 멕시코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고려되어졌다. 80년대이후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지닌 그룹들이 멕시코의 주요한 도시에서 삶의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정치적 조건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의 성격과 구조의 체계적 분석은 아직 미비하다. 이 현상의 일반적 성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운동발생의 객관적 조건들

멕시코의 도시에는 도시생활의 조건을 혁신하기 위한 대중의 운동을 가능하게 한 객관적 조건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요인으로 다음 4가지가 지적된다.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출의 감소(〈표 9〉 참고), 인플레보다 높은 토지와 주택임대료의 인상, 실질임금의 하락(〈표 10〉 참고), 실업의 증가(〈표 3〉 참고), 도시 서비스의 부재 또는 악화 그리고 반민주적인 정치구조와 정치행태등은 그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이외에도 계층간의 소득의 불균형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80년대말 전체 인구의 50%(4000만)가 월 200\$로 생활하고 5%(450만)만이 월 4000\$의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Camin, 1993:220-2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는 언제나 자동적으로 대중들을 행동으로 이끌지는 않

〈표 9〉 공공부문지출의 구조별 경향 1980-1988

개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 경제지출	41.3	43.7	31.7	33.2	32.1	32.9	25.7	22.9	23.8
통신과 교통	5.7	5.4	4.3	4.8	5.4	5.3	4.0	3.6	3.8
에너지	22.7	23.9	16.6	15.2	10.6	14.6	11.9	10.6	11.1
농수산업	1.3	1.4	1.2	1.3	1.3	1.1	1.0	0.8	0.7
산업	6.4	6.5	4.4	5.9	8.6	7.7	5.8	5.2	5.7
상업	4.9	6.2	4.4	5.9	6.1	4.1	2.9	2.6	2.4
관공산업	0.3	0.3	0.2	0.1	0.2	0.1	0.1	0.1	0.1
2) 사회지출	21.1	20.6	17.1	14.1	15.2	15.5	12.2	10.8	12.1
사회발전	21.1	20.6	17.1	14.1	15.2	15.5	12.2	10.8	12.1
3) 행정지출	37.6	35.7	51.2	52.7	52.7	51.6	62.2	66.3	64.1
행정, 국방									
사법	6.0	5.1	3.8	3.6	4.4	4.4	3.3	2.8	2.9
외채이자	31.6	30.6	47.4	49.1	48.3	47.2	58.9	63.5	61.1
총 공공부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Esthela Gutierrez Sexenio, 앞의 책 58쪽에서 채인용

〈표 10〉 실질최저임금지수의 변화(1980=100)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지수	89.9	74.2	69.0	69.5	63.0	59.1	51.8	48.6	44.1	42.2

자료 : INEGI ; Huerta(1993 : 109) ; 이성형(1993 : 27)에서 제인용

는다. 석유도시의 경우와 산업항구에 가까운 도시들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으로 인한 수많은 주택과 서비스의 엄청난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직적인 사회적 저항은 보여지지 않았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은 도시 대중운동의 출현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농촌 출신 도시 이주민의 정치의식의 부재와 독립된 조직의 부재 ; 2)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절대적 영향력, 즉, 국영 기업을 통해 노동자를 마비시키고 매수할 수 있는 국가의 영향력. 이 두 요소의 결합은 도시대중의 민주적인 결집에 대항하는 방해물로서 작용하였다.

도시문제의 정치화는 자동적으로 멕시코 야당의 개입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1915년에서 1930년까지 임대자운동에 대해 멕시코 공산당이나 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개입하였으나 그러나 지속적인 해결의 과정은 집권여당에 주어졌다. 다시 말해, 집권당으로부터 독립한 권리회복운동의 출현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전환에는 아직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 그 가운데 다음의 요소들이 돋보이며 이점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져야 할 것이다. 1)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나 전국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한 그룹에 의해 다른 그룹이 소외되는 사건속에서 나타나는 집권당의 내부분열 2) 이러한 선상에서 일어나는 집권당과 지배브로조아의 지배적 계층사이에서의 일시적 논쟁.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일시적 갈등 또는 지원의 단절 이것은 독립된 정치세력 또는 그룹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4) 집권당의 핵심부(대통령)에 의한 민주화의 시기 또는 인민주의의 시기는 다양한 형태로 체제의 나머지 정치적 구조에 영향을 주며 야당그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5) 도시 대중운동의 중심간부와 지도자의 점진적 형성은 전통적인 까우디요(Caudillo)의 지배 구조를 파괴하고 밑바닥 대중들의 민주적 참여를 도울 수 있다.

(2) 운동의 주체와 국가와의 관계

멕시코 도시사회운동의 특수성을 논하기 위하여 지배계급과 중간계층에 의해 실현되는 다른 도시권리회복운동과 관련지우는 것은 유용하다. 동시에 그것을 국가에 의하여 매수된 피지배계급이 실현하는 권리회복운동과 차별지우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는 부르조아와 중산계층의 몇몇 그룹이 주도한 도시운동도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도권 위성도시, 멕시코주의 테카마초코(Tecamacholco)와 바예도라도(Valle dorado)의 주택지역의 예가 그 대표적 경우였다. 멕시코시의 구도로를 건설할 동안에 “푸른 군단”이라고 알려진 그룹은 기본적으로 중산계층으로 구성된 저항운동이었다. 그

들의 역사는 비록 짧았지만 도시의 중간계층사이에도 동원의 잠재력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의사노조, 교사노조, 공무원 노조, 은행노조, 여성운동과 같은 중간계층운동이 있으며 이들의 참여민주주의 요구는 도시사회운동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도시 사회운동은 도시의 대중들에 의하여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도시권리 회복운동의 해제모니는 오랫동안 집권당인 제도혁명당이 지니고 있었다. 이미 1946년에 집권당은 CNOP를 조직하여 대중부문을 흡수,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도시화의 심화로 도시문제가 심각하여지자 1984년에는 도시환경청 (Secretaria de Desarrollo Urbano y Ecología : SEDUE)을 신설하여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정책을 전담하게 하였으며 주택법을 제정하여 토지무단점유의 정상화, 주택건설의 지원을 담당하게 하였다. 1986년에는 PRONASOL의 조직을 통하여 집권당은 이 영역에서의 통제와 지배를 누려왔다. 도시운동은 멕시코에서 지배의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익 야당인 뺑(PAN)도 멕시코주와 국경도시(후아레스시 : Ciudad de Juarez)의 주택가에서 일어난 주요한 도시운동에 소수이지만 중요한 참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좌파가 도시민중운동의 지도적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88년 멕시코시의 선거결과는 이점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도시운동의 조직과 정치의식의 정도는 다양하다. 그들은 정확하고 일시적인 표현으로서 나타날수 없다. 어떠한 유기적 조직도 없이, 사회적 불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원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어떤 것은 안정된 조직으로 변형될 수 있다. 다른 것은 국가에 의하여 격리되고 또는 파괴되면서 종종 정치적으로 급진화되는 것으로 끌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에 대한 도시운동의 관계는 복종, 자기방어, 조직적 입장, 협상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입장의 결과 사용된 전술에는 고객주의에서 급진적 입장으로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시말해 국가와 부르조아에 대한 자신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내적 조직과 안정을 유지하는 운동의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

(3) 계급적 성격 : 운동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도시비공식부문

도시투쟁에 있어서 지배적인 민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분명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공통적인 성격화에 있어서 판자촌, 대중주택가, 빈민가, 불법주택가등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세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예비군, 룸펜부르조아,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여 왔다. 이러한 성격화는 여러가지 구체적 조사결과를 검토해 볼 때 모순적임을 보여준다. 경험적 조사들에 따르면, 민중주택가의 보다 비중이 높은 계층은 현재 취업중의 노동자이며 기본적으로 그들은 소규모 서비스부문에 종사한다. 그리고 30-40%는 임시직 노동자나 일시적 실업자 또는 산업예비군의 일부가 해당하며 그리고 그 다음 적은 부분이 빈곤해진 소

브로조아(가내수공업가, 소상인, 고용인 등)로 구성되며 그리고 아주 적은 부문이(1-3%) 룸펜 부르조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농촌에서 이주한 인디오 원주민도 도시 비공식부문의 고용을 담당하는 유동적 계층을 이룬다. 다시말해, 비록 도시 대중운동안에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 또는 부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좌취의 상황과 정치적 지배의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 현상이나 이러한 상황이 계급의식을 일으키는 객관적 조건이 되는지는 좀 더 규명되어 져야 할 부분이다.

3. 사례연구 : 코나무프(CONAMUP)의 경우

사례연구를 통해 앞에서 분석한 멕시코 도시사회운동(MUP)의 일반적 성격을 좀더 보완하려고 한다. 사례연구의 예로는 멕시코 전체 MUP의 대표적인 연합체의 하나인 CONAMUP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¹⁰

(1) CONAMUP의 역사와 발전단계

코나무프운동의 기원은 1980년 5월에 북부 몬테레이시에서 개최된 제1차 대중 주거지(콜로니아)운동의 전국대회였다. 전국에서 모인 15개의 민중운동과 700명의 대의원으로 대표된 이 전국대회는 당시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세 대중운동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 멕시코시의 대중주거운동 연합, 몬테레이, 듀랑고. 이 모임에서 투쟁경험의 상호교환, 국가의 억압앞에 상호연대의 협약의 실현, 대중운동의 임시적 전국연합의 형성이 논의되고 집약되어 졌다. 1981년 5월에 멕시코 북부의 듀랑고주에서 대중운동의 제2차 전국모임의 결과이자 기본적 합의로서 코나무프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졌다. 코나무프는 대중운동의 분산을 방지하고 공통의 프로젝트의 수행을 목표로 하는 전선형의 대중의 폭넓은 연합체이다.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전개된 대중운동의 가장 발전한 표현이며 그 구조화를 달성하고 단일한 조직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지닌 가장 진일보한 조직이다. 이것은 멕시코 도시사회운동이 부문운동의 통일과 부문적 중앙집권화의 과정중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1968년의 학생운동이후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지하운동의 성격과 산발적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¹¹

멕시코 도시사회운동의 주요 연구가의 한사람인 페드로 목테수마는 코나무프의 발전 단계를 다음 3단계로 나눈다(Moctezuma, 1993:3) : 1980-1983년까지가 첫단계로서 이 시기에 대중적 농민노동자 전국협의회가 구성되고 전국적 시민파업의 시민적 저항이 일어난다. 이 시기에 운동은 전국 14개주로 확대된다. 조직으로서 운동의 본성은 비당파

¹⁰ CONAMUPO의 제1차 2차 전국모임의 주요문서는 Punto Critico(No.126, julio de 1982), Testimonios (UAG, No.1, 1982), Boletin Conamup(No.3, marzo-junio 1983)을 참고 할 수 있다.

¹¹ 1980년대 멕시코의 도시사회운동의 기원으로 비비에네 베네트는 1968년의 학생운동에서 파생한 마오주의노선의 급진적 운동을 지적하였다(Bennet, 1993).

성과 비선거성을 표명하며 조직의 구성멤버들에 있어서 정당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위임한다.

둘째 단계는 운동의 확립기로서 1984년부터 1988년까지이다. 도시운동의 새로운 조직과 투쟁의 형태가 나타나며 환경,주택,문화영역에서 그 당시까지 지배적인 집권당의 도시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실천으로 나아간다. 1985년의 지진으로 유발된 극적 경험은 도시의 재건설과 정치기구에 있어서 정부의 협약성과 부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코나무프는 구호와 재건의 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적 인정을 받는 단체로 부상한다. 그리하여 1988년에 코나무프는 북부와 중부지방의 거의 전 도시로 팽창되고 수도에는 중산층이 지진이후 도시투쟁의 다양한 표현에 통합되면서 도시사회운동은 카르데나스(Cardenas)의 민주화운동과 연결되어 겼다. 집권당(PRI)내부에서 민주화의 가능성이 불가능함을 인식한 카르데나스는 집권당을 탈퇴, 기존 좌파정당과 광범위한 야당선거연합인 FDR을 결성하였다. 코나무프는 1988년 7월 6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표의 방어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1987-1988은 운동의 절정기로 평가된다(Vega, 1989).

마지막 단계는 1989년에서부터 지금까지(1992)이다. 이시기에 운동은 조직적 측면에서 공동체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질적으로 변혁시키는 중요한 도약을 한다. 운동이 도시대중운동에서 공동체적 운동들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망되기도 한다(Moctezuma 1992). 여기에는 운동이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적 투쟁의 부문까지 흡수하는 운동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지난 1993년초의 선거참관운동은 중요한 경험이로 간주된다. 이것은 도시운동이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0년대에는 도시운동이 그 비밀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면, 80년대에 들어와서 도시사회운동은 점진적으로 관계를 확장하였다. 학생운동과의 동맹, 지식인과의 동맹, 농민운동과의 동맹, 인디오 원주민과의 동맹, 좌파정당과의 동맹, 민주적 관료와의 동맹, 종교단체와의 동맹, 비정부민간단체와의 동맹 등을 통해 도시사회운동은 다양하게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넓혀 왔다.

이시기는 살리나스로 이어진 집권당(1988-1994)이 “프로나솔(PRONASOL)”이란 새로운 조합주의적 전략으로 독립적인 도시운동의 팽창을 저지하고 이전에 상실한 힘을 회복하려 한 시기이기도 하다.¹² 이시기는 운동파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의 국면이며 이것은 운동의 분열로 나타난다. 즉 1989년에 코나무프는 두개의 운동으로 분열된다: 도시대중운동의 전국연합(*la Asamblea Nacional del Movimiento Urbano Popular*)과

¹² PRONASOL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보완책으로 CNOP를 대치하여 대중부문을 흡수통제하려는 취지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하여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갔다. 이연대 프로그램은 생산프로그램과 사회적 안정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다. 야당은 이정책을 일시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자선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 연대정책의 실패는 지난 1월 치아파스의 농민봉기로 입증되어졌다. 프로나솔은 치아파스주에 엄청난 재정지원을 하였는데 정작 필요한 재원은 농민에게 가지 않고 중간에서 모두 중발하고 말았음이 이번 봉기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도시대중운동의 전국대회(*la Convencion Nacional del Movimiento Urbano Popular*). 그리고 1991년부터 운동은 원자화되기 시작한다. 1991년은 또한 도시운동의 핵심부에서 신자유주의의 강풍앞에 아이덴티티의 위기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빈곤과 주변성에 대항한 전반적 투쟁을 포기하는 것과 병행하면서 일어났다. 아이덴티티의 위기는 지도부의 위기이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차원의 모임의 소집능력이 무력해지는 것과 일치한다. 사실상 1992년에 예정된 제12차 전국모임은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구조와 성격

코나무프안에는 멕시코의 수많은 독립된 도시대중운동 전부가 통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수와 중요한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듀랑고, 누에보 레온, 사카테가, 치우아우아, 케레로, 바하칼리포니아, 미추아칸, 나아렛, 소노라, 구아노후아토, 오아하카, 멕시코주, 수도 등 약 13개주에서 대중전선파, 노동조합, 도시대중운동 연맹이 이 연합체에 참여하였다. 운동의 사회적 지지기반의 대부분은 멕시코의 북부와, 중부 그리고 멕시코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비록 통합된 조직의 수가 연합체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힘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연합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도시 가족의 수는 대략 10만 가구로 추정된다(Ramirez, 1986).

다양한 조직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이질성이 이외에 연합체안에 연결된 다른 그룹들의 이질성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빈민촌, 세입자들, 임대주택신청자들, 비임금노동자들에 의하여 통합되어 있다. 이들은 도시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이기도 한다. 동시에, 내부적 발전의 정도,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수준 그리고 동원의 정도는 그들 사이에 서로 동일하지 않다. 다시말해 연합체내의 이질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주어진다. 여기에 문제의 복잡성이 있으며 동시에 운동의 풍부함도 존재한다.

대중연합체의 조직은 노동조합 또는 정당의 구조와는 다르다. 코나무프의 구조는 확립기의 단계에서 형성되어졌다. 조직의 강령과 원칙들은 1981년이후에 분명하여졌다. 전국대회는 매년 개최되며, 전국협의회는 매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지역협의회는 멕시코 수도권지역에서만 단지 소집되고 있다. 나머지는 명목상일 뿐이다. 수도권 지역은 5개지역으로 나누어진다 :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 수도에는 또한 구별 위원회가 존재한다. 대표자들의 지역별 협의회는 매달 소집되며 지역별 구별 협의회는 매 15일마다 소집된다.

라미레스에 따르면, 앞에서 본 위원회들(조직, 대외관계, 홍보와 선전, 재정)가운데 중요한 일은 다음 세 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1) 조직, 2) 홍보와 선전 3) 재정. 정치적 형성의 기능은 각 조직의 다른 정치적 노선들을 존중하기 위하여 각조직에 위임되어 있다. 기술적 법적 지원의 위원회는 아직 활동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조직과 대외관계위원회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말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이 위원회에의 참여는 거의 부재하다. 선전과 홍보위원회는 그 활동을 기관지의 발간,

언론과의 기자회견, 논문의 발표, 고발과 연대의 유인물 배포에 한정되어 있다(Ramirez, 1986).

코나무프의 이데올로기 문제에 있어서, 코나무프는 대중조직이지 정치조직(당파적이건 아니건 간에)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핵심지도부는 이러한 정치적 조직중 어디에도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 기구의 측면에서 코나무프에는 기독교 그룹(해방신학의 기초공동체를 포함한)에서 모태동의 급진적 경향을 유지하는 그룹까지 다양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그들 가운데는 대중노선의 혁명적 좌파조직, 민중의 혁명적 운동, 전국혁명적 시민협의회, 혁명적 투쟁의 연합체, 사회주의 경향등이 포함된다(Bennett, 1993).

대중운동의 주요한 부문의 조직적 표현과 관련하여, 코나무프는 다음과 같이 그의 주요한 요구를 요약한다 : 1) 권리회복의 측면 : 토지, 집, 도시 서비스부문(수도물, 배수공사, 학교, 병원, 교통수단) 하부구조 그리고 부동산의 임대에서 정당한 조건등이 이루어 진다 ; 2) 정치적 측면 : 독립된 조직과 표현의 권리, 토지(동, 면, 구 등)의 결정에 대한 참여 ; 탄압에 반대하는 대중적 대표조직의 민주화 ; 대중의 다른 부문과의 연대(농민, 노동자, 학생, 정치범 등) 그리고 해방의 투쟁가운데 있는 다른 민족과의 연대(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코나무프는 대중운동을 이용할 수 있는 전술가운데 연대와 동맹의 수립이 뛰어나다. 연대의 측면에서 보면, 코나무프는 노동파업, 농민의 요구와 초중고교사들의 투쟁들에 대한 연대는 자주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언급한 부문 협의회와의 긴밀한 연결속에서 강화되어 졌다 : 코시나(COCINA), 시엔페에(CNPA), 시엔티에(CNTA)들이 그 대표적 연대조직들이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코나무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제적 요구에만 투쟁을 집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비록 이점이 권위주의적 정책에 대항한 투쟁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형태로 권력을 향한 투쟁, 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부문에서 지역으로 확장되는 정치투쟁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Ramirez, 1986:188)”

투쟁의 형태에 있어서, 코나무프는 중요한 예로 제시된다. 코나무프는 합법적 투쟁의 형식들을 핵심적 수단으로 사용한다. 투쟁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대중의 조직적 동원을 사용하였고 선전수단을 통한 고발, 교통수단과 사무실의 점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코나무프의 결성은 멕시코 수도권의 기본적인 공동행동의 실현과 같은 다른 전술을 쉽게 하였다. 지역 코나무프의 존재는 멕시코시 시청앞(소칼로 : Zocalo) 광장에서의 여러 조직체에 의한 시위를 가능하게 하였다. 코나무프가 이룬 또 다른 결실은 탄압, 권위주의, 결핍, 재산법 등에 반대하는 투쟁의 전국적 파업의 실현이다. 이것들은 코나무프의 권리회복과 정치적 의식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코나무프의 빈약한 경험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1) 코나무프는 계급의 성격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였다. 전선의 연합을 위한 도시문제에 대한

투쟁의 주도권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형성된 전선은 민중운동의 기반으로서 불평등한 지원을 받았다. 어떤 경우에서는 다른 협의체의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강력하나 어떤 지역에서는 지원이 아주 허약하였다(Ramirez, 1986).

대중운동과 국가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문제의 특수한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이것은 그들사이의 접촉이 정상적으로 운동의 다른 차원(지역, 지방, 전국적)과 권력의 상대적 책임자(주지사, 구청장, 대통령)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코나무프에 대한 국가의 대응형태에 있어서 이들 조직의 전국적 성격을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국가(지역적, 지방적, 연방적 차원에서)가 코나무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분적 또는 전면적 철거와 같은 수단이 취해졌으며 모든 형태의 불법적 점유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취해졌다. 철거는 선택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적용되어 졌다. 이러한 국가의 억압적 행위가 코나무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나 공통점은 정부의 공식적 대중기구(CNOP등과 같은)주변에서 행동하는 조직에 대항하여 적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요약하면, 국가가 코나무프의 존재, 요구, 투쟁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것은 도시의 정치영역에서 코나무프가 국가의 이익에 위협적이 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가는 코나무프를 무시하거나, 그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분열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면 코나무프를 중립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단순히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마드리드 정부와 살리나스 정부는 도시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상실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중적 전술을 사용하였다. 한편으로는 코나무프를 단절시켜, 그것의 조직적 표현을 단절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역에서 가져왔던 국가의 통제와 혜택모니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4. 도시비공식부문과 사회운동과의 관계

도시비공식부문이 전통적인 노동운동에 위기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사회운동에 주는 영향은 적극적이고 고무적인 측면이 더 많다. 한마디로 비공식부문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사회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구별해야 점은 신자유주의자의 “비공식부문 예찬론”(헤르난도 데 솔토의 비공식부문 혁명론 : de Soto, 1986)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긍정론이다.

비공식부문의 영역은 상업, 서비스, 중소제조업, 건설, 가내 공업등이다. 법의 준수를 기피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와 법의 보호가 배제된 곳이다. 주택, 공공서비스, 교육, 건강, 사회보장등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지역이다. 이의 권리회복을 위한 투쟁의 주체로서 이들은 가능성 있는가? 여기에 비공식부문과 사회운동과의 관계가 논의 될 수 있다. 폐루의 경우,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들을 자본주의 혁명의 전위대로 간주한

다면,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는 사회주의 혁명의 사회적 기반으로 파악한다. 멕시코의 경우는 아직 그 어느쪽도 분명한 성격규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들 그룹을 신국가형성의 신조합주의의 사회적 기반으로 흡수하려 힘을 보여준다. 안정과 성장을 위한 연대프로그램(PRONASOL)은 기준의 대중부문조직(CNOP)을 대치하려는 구체적인 조직적 표현이며 “연대적 자본주의(capitalismo solidario)”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liberalismo social)”는 그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다. 이와 달리 중도좌파를 포함한 야권의 입장은 공식부문의 팽창을 통한 비공식부문의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70년대 “주변부계층”논의와의 차이는 이들 비공식부문이 사회변혁에 차지하는 적극적 역할에 대한 평가이다. 도시대중운동에 대한 좌파의 관심의 고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도시비공식부문과 노동운동과의 관계

도시비공식부문이 신사회운동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노동운동에 주는 충격은 도전적이다. 오랫동안 노동운동은 멕시코의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지난 40년간의 안정적 발전전략을 지탱해온 주도적 그룹의 하나였다. 1917년의 헌법과 1931년의 노동법에 기초한 노동관계체제는 수입대체산업기간동안(1940-80)에 조직된 노동운동(5백만 조직노동자)을 강화시켰으며 동시에 노동시장의 안정(통제)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Zapata, 1993:323).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주의의 재구성과 기술발전 그리고 노동의 새로운 국제분업은 노동운동의 전통적인 문제제기를 재고하도록 이끌었다. 왜냐하면 세계경제의 위기는 단지 경제구조에 뿐만 아니라 정치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동운동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바꿀 수 없는 경향이다(Jacobs, 1984). 그중에서 중요한 사실은 노동조건의 유연화(Garza, 1993)와 이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이다. 과거의 산업화과정에서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수출산업노동력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이 발생한다. 대기업에서 하청받은 소규모기업의 고용이 증가하고 가내서비스 고용과 비공식부문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앞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멕시코의 노동사회학자인 사파타는 노동조합주의의 위기적 상황은 1982년 적용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면서 이제 노동운동이 노동시장의 다이나믹스를 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였다(Zapata, 1993).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의 요소로서 그는 경제의 개방과 이에 따른 노동통제의 재조정, 수출산업지향적 고용구조의 변화, 국가기업의 사유화로 인한 노동조합의 기반의 파괴 등을 지적하였다. <표 11>에서 보듯이 라틴아메리카는 공공서비스부문의 기업이 반으로 줄었다면 영세소규모기업은 배로 늘어났으며 비공식부문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멕시코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임금노동자의 상대적 감소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기반의 상실에 기인한다. 그

〈표 11〉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 1980-1990

(단위 : 백만)

고 용 장 소	1980		1990	
	인 원	%	인 원	%
대 기 업	37	44	37	32
중 소 기 업	12	15	26	22
비 공식 부문	16	19	28	24
가 내 서 비 스 업	5	6	18	16
공 공 서 비 스 업	13	16	8	7

자료 : Programa Regional de Empleo para America Latina y el Caribe(PREALC),PREALC Informa, Num. 29, Santiago de Chile, abril de 1992 : Francisco Zapata, 1993, p.147에서 재인용

러나 대부분은 종종 노동시장에서 움직이는 노동력의 중요한 부분이 가입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 모든 변화는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빈약한 단체 협상의 조건을 지닌 고용구조를 창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동원의 사회적 기반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운동은 부문전략을 통한 전반적 형태로 행동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출모델의 요구에 적응시키려는 자본과 기업주의 프로젝트를 작업장에서 직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의 개인화와 집단적 의미에서 협상의 필요를 원하지 않는 기업의 태도를 인식시켜 준다. 비공식부문의 증가는 노동조합운동의 종속성이 요구되고 자율성이 위협받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Zapata, 1993:334).

6. 신사회운동과 교회와의 관계

멕시코에서 교회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는 기초공동체(Comunidad Eclesial de Base : CEB) 운동을 통해 이루어 진다. 멕시코 기초공동체 운동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으며 사회운동과의 관계는 더욱 최근의 일이다. 멕시코 기초공동체는 1960년대 초에 몇몇 사제와 수녀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12,000-15,000개의 지역 기초공동체가 존재한다. 주로 멕시코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32개지역(전국 32개 주)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운동은 전국적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매주 전국적으로 15-20 만 정도의 주민이 참여한다. 특히 가족을 포함하면 매주 60-70만 정도가 기초공동체 모임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2년에 한번씩 전국대회가 있으며 3년에 한번씩 전대륙적 차원의 대회가 있다. 전체 인구에 비해 아직은 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아주 중요한 모임이다. 그러나 기초공동체의 모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양적인 면에 있지 않으며 방법론과 내용에 있다(Malo, Gari y Salas, 1986).

기초공동체가 사회운동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1980년 제9차 멕시코 기초공동체 전국 대회때부터이다.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제10차 전국대회때 사회운동을 본격적인 연구주제로 삼았다. 대부분의 기초공동체가 농촌지역과 도시빈민지역에 분포해 있는 이유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기초공동체의 멤버들은 사회운동단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 두 운동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연대와 상호지원 그리고 상호존중과 인정의 실천에서 출발한다. 또한 사회운동의 분산성과 과편성을 극복하고 투쟁의 전국적 연합과 조정의 필요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운동이 기초공동체의 자율성과 독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이 양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두 운동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으로는 사회운동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경향과 프로젝트의 공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내부에 분열을 유발하지 않는 정치적 입장의 다원성을 허용하는 것과 대중조직으로서 기초공동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7. 몇가지 결론들

(도시)사회운동의 중요성과 영향은 그들이 생산하는 결과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이것들은 다양하며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은 국가와 국가의 대중조직의 힘앞에서 제한되어 있다. 특별히 “독립적” 운동의 실질적 영향력은 훨씬 적다. 요약하면, 집권당의 다양한 대중조직들이 계속하여 도시의 대중운동의 통제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대중운동이 새로운 현상으로서 정치적, 도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에서 다루어진 몇가지 문제에 대한 결론을 잠정적으로 유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좌파정당과의 관계

좌파정당에 의한 대중운동의 가능한 흡수는 도시대중들의 권리회복의 요구에 대한 그들의 프로그램의 가능성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문제에 대한 좌파정당의 개입은 언제나 선거시기에만 나타났으며 그 선도적 기능은 대중운동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988년의 대통령선거 이후 정당들은 도시대중들의 투쟁의 중요성과 그들의 선거과정에의 결합을 인식하였다고 지적된다.

도시운동과 정당과의 관계는 다음 두가지가 예상된다. 1) 도시대중운동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운동들의 정당으로 변하는 것 ; 2) 다양한 도시운동이 다양한 정당들과 관계를 맺는 것. 어떠한 형태의 연합전선에도 불구하고 대중운동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동맹의 결과는 운동의 실종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도 않으며 기본적으로 도시대중조직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강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Ramirez, 1986 ; 1992).

(2) 노조와의 관계

노동조합을 통한 도시권리회복운동의 실현은 그들의 프로그램과 실천의 영역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노동조합 프로그램에 있어서 도시문제는 노동계급 대부분이 도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에는 아주 적게 등장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측에서 도시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밖에 있는 이들의 필요와 도시운동을 포함할 가능성은 더욱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3) 국가에 의한 사회운동의 매수

도시부문에 대한 국가와 집권여당의 해제모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 ‘신자유주의’ 체제가 대중운동이 제기하는 민주화와 독립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미비하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체제에 의한 대중운동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Hellman, 1994) 지나친 비판론일 수 있다.

IV. 결론 : 요약과 문제

1. 요약

이 연구에서 우리의 주제는 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이 멕시코의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사회의 반응으로서 신사회운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글에서 우리가 규명하려 한 중심테제는 비공식부문의 증가현상과 신사회운동의 증가현상은 일시적인 위기적 요인에 의한 순간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장기적 경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점을 우리는 먼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동(포스트-포디즘)과 멕시코 국내의 신국가해제모니 형성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분석하였고 그 다음 도시비 공식부문의 성격을 고용구조적 측면에서 논의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신사회운동의 성격과 구조를 역사적 발전과정의 분석과 구체적인 사례 분석 – 코나무프 – 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신자유주의라는 국제적 흐름과 국내의 국가, 자본, 노동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고용구조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려 하였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지난 80년대, 마드리드-살리나스 행정부 기간동안 멕시코에는 단지 구조변동만이 있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형성을 위한 변동이 동시에 진행되어 졌다는 점이다. “새로운 국가”的 프로필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심지어 모순적인 모습까지 보여 주고 있다. 확실한 것은 거의 70년동안 지속되어온 멕시코국가의 조합주의적 동맹관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해제모니가 위에서,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가 완전히 해체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루이스 멘데스와 미겔 앙헬은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자유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시기로 규정하였다(Mendez y Romero, 1992).

이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이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

2. 문제점

첫번째 문제는 멕시코에서 신사회운동은 국가가 해체되고 시민사회가 등장하는 시대에 사회적 프로젝트를 지닌 조합주의 국가를 방어하고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비판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국가가 “조합주의적” 국가를 비판하고 국가의 희생자였던 사회가 “조합주의적” 국가를 방어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신사회운동은 사회적 협약을 위한 조합주의는 분명하게 방어하나 통제의 고객주의적 노선에는 저항한다. 다른 말로 하면,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구조변화는 사회운동의 저항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변화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에 – 조합주의적 국가론과 민족경제의 발전모색 – 정책적 현실성이 있는가하는 점이다. 올해 초 치아파스에서의 농민봉기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성을 제시하나 이번 1994년 선거결과는 아직 도시대중의 확신이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에서 멕시코 정치체제의 제도적 변화(민주화와 정치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운동의 역량에 대한 평가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두번째 문제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평가이다. 80년대 신사회운동은 그들의 시민적 권리 회복을 더이상 단순한 선거고객주의 차원에서 청원하지 않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본권리와 관련하여 주장하였는데서 그 질적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딜레마는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대중계층의 정치의식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도시비공식부문의 이중적 정치의식은 사회운동의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병국

1994 『분단과 혁명의 동학-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서울, 민음사.

이남섭

1994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타 사회구조 변동과 사회운동” 『지역연구』, 제3권 제1호.

이성형

1990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 서울, 까치.

1993a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사회비평』, 9호, 나남, 121-148

1993b “멕시코의 경제개혁1982-1993”, 『비교경제연구』.

Alcantara, Manuel y Martinez, Antonia(Comps.)

1992 *México frente al umbral del siglo XXI*, Madrid, Siglo XXI.

Alonso, Jose Antonio,

- 1991 "El papel del sector informal en la sociedad mexicana. Un acercamiento crítico a las microindustrias", *Problemas del desarrollo*, Vol.XXII, No.96, julio-septiembre, pp. 127-147.
- 1994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y la industria mexicana : un acercamiento sesgado desde el sector informal", *Problemas del desarrollo*, Vol.XXIV, No.90, julio-septiembre, pp.181-196.
- Alonso, Jorge, Azis, Alberto y Tamayo, Jaime(Coord.),
- 1992a *El Nuevo estado mexicano I. Estado y economía*, Mexico, Nueva imagen.
- 1992b *El nuevo estado mexicano III. Estado, actores y movimientos sociales*, Mexico, Nueva imagen.
- Azuela, Antonio y Emilio Duhau
- 1987 "De la economía política de la urbanización a la sociología de las políticas urbanas", *Sociológica*, No.4.
- Barry, Tom
- 1993 *Mexico, una guía actual. La fuente esencial sobre la sociedad mexicana, su economía y política*, México, Inter-Hemispheric Education Resource Center.
- Basnez, Miguel
- 1992 *La lucha por la hegemonía en México. 1968-1990*, Mexico, Siglo XXI.
- Belisle, Francois,
- 1992 *Trabajo informal y pobreza urbana en América Latina*,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 Bravo, Pedro Vuskovic
- 1990 *La crisis en América Latina : Un desafío continental*, Mexico, Siglo XXI.
- Calderon Salazar, Jorge A.
- 1994 "Política económica para la transición a la democracia", *Memoria*, mayo, No.66, pp. 43-50.
- Calderon, Fernando(ed.),
- 1986 *Los movimientos sociales ante la crisis*, Buenos Aires, UNU/CLACSO/IISUNAM.
- Camacho, Daniel y R. Menjivar(ed.),
- 1989 *Los movimientos populares en América latina*, Mexico, Siglo XXI.
- Camin, Hector Aguilar
- 1993(1988) *Después del milagro*, Mexico, Cal y Arena.
- Casar, Maria Amparo y Peres, Wilson
- 1988 *El Estado empresario en México : Agotamiento o renovación?*, Mexico, Siglo XXI.
- Casanova, Pablo Gonzalez
- 1990 *América Latina, hoy*, Mexico, Siglo XXI.
- Castells, Manuel(ed.),

- 1973 *Imperialismo y urbanización en América Latina*, Barcelona, Gustavo Gili.
- 1988 *La cuestión urbana*, Mexico, Siglo XXI.
- Cobos, Emilio Pradilla
- 1985 *Contribución a la crítica de la "Teoría Urbana"*, Mexico, UAM-Xochimiloco.
- 1987 *Capital, Estado y vivienda en América Latina*, Mexico, Fontamara.
- Conchello, Jose Angel
- 1992 *El TLC : un callejón sin salida*, Mexico, Grijalbo.
- Connolly, Priscilla
- 1990 "Dos decadas de sector informal", *Sociológica*, No.12, enero-abril, pp.75-94.
- Cordera, Rolando y Tello, Carlos
- 1993 *México : la disputa por la nacion*, Mexico, Siglo XXI.
- Cortes, Fernando y Cuellar, Oscar,
- 1990 *Crisis y reproducción social : Los comerciantes del sector informal*, Mexico, FLACSO/Miguel Angel Porrua.
- Coulomb, Rene
- 1992 "Investigación urbana, cambio social y política", *Sociológica*, Enero-abril, pp.73-88.
- Cueva, Agustin
- 1988 *Las democracias restringidas de America latina : elementos para una reflexión crítica*, Ecuador, Planeta.
- Cypher, James M
- 1992(1990) *Estado y capital en Mexico. Política de desarrollo desde 1940*, Mexico, Siglo XXI.
- Davis, Diane E.
- 1993 "The dialectic of autonomy. State, clase and economic crisis in Mexico, 1958-1982", *Latin American Perspective*, Vol.20, No.3.
- Duhau, Emilio
- 1991 "La sociología y la ciudad. Panorama y perspectivas de los estudios urbanos en los años ochenta", *Sociologica*, N.15.
- 1992 "Ciencias sociales y estudios urbanos : Adios a los paradigmas?", *Sociológica*, No. 18, enero-abril, pp.29-44.
- Fajnzylber, Fernando
- 1987 *La industrialización truncada de América Latina*, Mexico, Editorial Nueva Imagen.
- Feijoo, Jose Valenzuela
- 1988(1986) *El capitalismo mexicano en los ochenta*, Mexico, Era.
- Fernandez, Didimo Castillo
- 1993, "La mujer en el sector informal de que hablamos?", *Acta Sociológica*, No.7, enero-abril, pp.9-22

- Foweraker, Joe
- 1990 "popular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in Mexico", pp.3-20 in Joe Foweraker and Ann L. Craig(eds.), *Popular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in Mexico*, London and Boulder, Lynne Rienner.
- Garcia, Brigada
- 1988 *Desarrollo económico y absorción de fuerza de trabajo en México*, Mexico, El Colegio de Mexico.
- Garza, E. de la
- 1988 *Ascenso y crisis del Estado social autoritario*, Mexico, El Colegio de Mexico.
- Garza, Esthela Gutierrez(Coord.),
- 1990 *Testimonios de la crisis. 4 Los saldos del sexenio(1982-1988)*, Mexico, Siglo XXI.
- Hellman, Judith Adler
- 1994 "Mexican Popular Movements, Clientelism, and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81, Vol.21, No.2, spring, pp.124-142.
- Klein, Emilio y Tokman, Victor E.
- 1988 "Sector informal : una forma de utilizar el trabajo como consecuencia de la manera de producir y no viceversa. A propósito del artículo de Portes y Benton", *Estudios Sociológicos*, Vol.VI, No.16, enero-abril, pp.205-212.
- Labra, Armando(coordinador),
- 1988 *El sector social de la economía : una opción ante la crisis*, Mexico, Siglo XXI.
- Latapai, Agusto Escobar
- 1992 "El nuevo estado mexicano y el trabajo informal", *El nuevo Estado mexicano I*, Mexico, Nueva Imagen, pp.253-280.
- Lomnitz, Larissa
- 1984 "Un modelo de la estructura de poder en el Mexico urbano", *Ciudad y sistemas urbanos*, Buenos Aires, CLACSO, pp.235-253
- Lopez, Cecilia M. y Pollack, M(ed.)
- 1992 *Genero y mercado de trabajo en América Latina*, Chile, OIT Lopez-Garza, Marta Christina
- 1985 *Informal Labor in a Capitalist Economy : Urban Mexico*,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 Lubell, Harold,
- 1991 *The informal sector in the 1980s and 1990s*, Paris. Development Centr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Martin del Campo, Julio Labastida(coord.),
- 1985 *Hegemonía y alternativas políticas en América latina*, Mexico, Siglo XXI.
- 1986 *Los nuevos procesos sociales y la teoría política contemporánea*, Mexico, Siglo XXI.

- Mesa-Lago, Carmelo,
 1990 *La seguridad social y el sector informal*, Mexico, PREALC
- Malo, Miguel Concha., Gari, Oscar Gonzalez y Lino F. Salas,
 1986 *La participación de los cristianos en el proceso popular de liberación en México (1968-1983)*, Mexico, Siglo XXI.
- Moctezuma, Pedro,
 1993 "Del movimiento urbano popular a los movimientos comunitarios : el espejo desenterrado", *El Cotidiano*, No.57, agosto-septiembre, pp.3-10.
- Moguel, Julio
 1992 "Caminos del movimiento urbano popular en los ochenta", *El Cotidiano* 50, sept-oct. pp.221-227
- Montano, Jorge
 1985 *Barreras institucional de entrada al sector informal en la ciudad de México*, Chile, PREALC.
- O'Brien, Eliana Chavez,
 1993 "El sector informal urbano : Estrategias de vida e identidad", *Nueva Sociedad*, No. 124, marzo-abril, pp.82-93
- Oliveira, Orlandina de y Roberts, Bryan,
 1993 "La informalidad urbana en años de expansión, crisis y restructuración económica", *Estudios sociológicas*, No.31, enero-abril, pp.33-58.
- Perez Sainz, J. P.
 1991 *Informalidad urbana en América Latina : enfoques, problemáticas e interrogantes*, Ed. Nueva Sociedad, Venezuela.
- Perzabal, Carlos
 1988 *Acumulacion de capital e industrialización compleja en México*, Mexico, Siglo XXI/CIDE.
- Portes, A., Castells, Manuel y Benton, Lauren A.(ed.)
 1989 *The Informal Economy. Studies in Advanc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Baltimore & Londo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Ramirez Saiz, Juan Manuel
 1986 *El movimiento urbano popular en Mexico*, Mexico, Siglo XXI.
 1992 "Entre el cambio social y el político : Investigación urbana y movimiento urbano popular en México durante los ochenta", *Sociológica*, No.18, enero-abril, pp.89-109.
- Rivera Rios, Miguel Angel
 1992 *Crisis y reorganización del capitalismo mexicano, 1960/1985*, Mexico, Era.
 1988 *El nuevo capitalismo mexicano*, Mexico, Era.
- Romo. Hector Guillen

- 1990 *El sexenio de crecimiento cero, méxico, 1982-1988*, Mexico, Era.
 Schatan, Jacobo., Pass, Dieter y Orsatti, Alvaro(comp.)
- 1991 *El sector informal en América Latina*, Mexico, CIDE/Fundacion Friefrich Naumann.
 Tokman, Victor E.
- 1987 "El sector informal : quince años después", *El Trimestre Económico*, No.215, julio-septiembre, pp.513-536
- Tourain, Alain
- 1989 *América Latina : Política y sociedad*, Madrid, Espasa Calpe. Zapata, Francisco
- 1993a *Autonomía y subordinación en el sindicalismo latinoamericano*, México, FCE/CM.
- 1993b "La crisis del control sindical sobre la dinámica del mercado de trabajo en México", *Reestructuración y regulación del mercado de trabajo en América Latina*, IIEL-OIT, Ginebra, pp.323-334
- Zermenio, Sergio
- 1989 "El regreso del líder : crisis, neoliberalismo y desorden",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octubre-diciembre, pp.115-150
- Vega, Edna
- 1989 "Movimiento urbano popular en México", Jesus Lechuga-Ferundo Chavez(coords.), *Estancamiento económico y crisis social en México 1983-1988*, Mexico, UAM, pp. 141-176.
- Witheyhead, Laurence
- 1989 "Algunas reflexiones sobre el "Estado" y el sector informal",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julio-septiembre, pp.99-112

El carácter social del sector informal y los nuevos movimientos sociales en el proceso de reorganización estructural mexicana(1982-1992)

Nam Sup Lee

El objetivo de este trabajo es estudiar la relación entre la reorganización estructural y el surgimiento de los nuevos movimientos sociales(NMSs) durante el período de 1982-1992, analizando el carácter del sector informal urbano. Nuestra tesis central es que el cambio reciente de la estructura fue el resultado de la mutua influencia del capital y del Estado. El reordenamiento de las economías capitalistas ha dado como

resultado “una nueva división internacional del trabajo” en donde se ha expandido el auto empleo con una disminución relativa del trabajo asalariado. Los nuevos procesos de flexibilización laboral son procesos para la desregulamentación laboral. Los cambios recientes de los años ochenta caracterizada por una desestructuración relativa de la planta industrial obligan a las grandes corporaciones multinacionales a impulsar la creación de alternativas tecnológicas innovadoras. Esta situación conlleva cambios en la estructura ocupacional, propiciando la expansión del sector informal urbano y modificaciones en la legislación laboral cuya consolidación implicaría un creciente aumento del desempleo y una notable disminución del salario real. El surgimiento del NMSs tambien fue una respuesta del sector popular por la superviviencia y por la una nueva alternativa del desarrollo. Para analizar éste hemos utilizado dos marcos teóricos: uno es la teoría del Estado; otro es la teoría de los nuevos movimientos sociales.

En la primera parte se discute la relación entre la reorganización del capitalismo mexicano y el cambio de la estructura ocupacional, procurando señalar la relevancia sociológica y algunas de las modalidades más importantes del llamado sector informal urbano. En la segunda y ultima parte se analiza el carácter del movimientos sociales, buscando exemplificar la estructura, organización y dinámica de este nuevo sujeto social. Nuestro conclusión es que todo esto cambio implica un proceso de formación del nuevo estado mexicano que todavía no se sabe su carácter definitiva.

이남섭, 전주한일신학교, 신학과
주소 : (565-830)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전화 : 0652-72-6730(H), 0652-83-7011(O)